



우란문화재단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인재들의 역량을 키우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만들고자 했던 고(故) 우란(友蘭) 박계희 여사(유키힐미술관 설립자)의 뜻을 이어받아 2014년 설립되었습니다. 우란문화재단은 사람 중심의 교육에서 문화산업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공연과 전시를 중심으로, 문화인력 발굴/육성과 콘텐츠 기획/개발, 더 큰 시장으로의 확장지원에 집중함으로써 다양한 예술적 가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사장 최기원 사무국장 강정모 비서 조은정 사업지원팀장 이용석  
 브랜드 파트 김영지, 박희경 경영지원 파트 정환희 인력육성 파트 김유철, 박예슬, 한주연  
 콘텐츠기획 파트 서미정, 장윤주, 정지영, 허지원 기술 파트 양수연, 우준상, 황규연

### CREDIT

프로듀서 김유철	의상디자인 뽀엣드로
작가 David Grieg	대표 도연
번역&드라마터그 이단비	팀장 이정운
연출 임지민	팀원 김소현, 이지혜, 이연주
조연출 정소윤	드레서팀장 최아람
음악 김태우	분장디자인 백지영
움직임 고은결	분장팀장 김정연
무대디자인 이창원	제작감독 우준상
조명디자인 이현규	무대감독 박은진, 김해도담, 윤해영
조명디자인 프로그래머 황규연	컴퓨터매니저 황만우
조명오퍼레이터 이호정	무대제작 BACK STAGE
조명스태프 나은영, 박철영, 신희, 안정민, 고두영, 이해영	의상제작 뽀엣드로
음향디자인 임태형	전식제작 고성원
음향감독 최종수	음향장비 센트럴사운드
음향오퍼레이터 양수연	티켓/하우스 프로스랩
	그래픽디자인 VISTADIA
	사진 서울 사진관
	영상 소보루 필름

문의 070-7606-5577 / wooranfdn@gmail.com

- www.wooranfdn.org
- Facebook.com/wooranfdn
- instagram.com/wooran\_fdn
- twitter.com/seeya\_tp

이 작품은 우란문화재단의 창작개발지원과정을 거쳐 시연되는 트라이아웃 공연입니다.

# 집에 사는 몬스터

The Monster in the Hall  
 임지민 연출

2018.01.13  
 sat  
 —  
 16  
 tue  
 프로젝트박스 시야

시아 스튜디오는 개발 단계부터, 리딩, 트라이아웃 공연에 이르기까지 공연 콘텐츠 전 과정을 지원, 작품을 개발, 무대화하는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장르 및 형태의 제한 등 기존의 정해진 기준과 틀에 맞춘 개발을 넘어 실질적으로 창작자의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콘텐츠에 가장 적합한 디벨롭 과정을 통해 완성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창작공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창작자는 작품을 개발하고 무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리딩 및 트라이아웃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작품의 특성에 따른 맞춤 지원은 물론 다양한 실험과 평가를 통해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 Synopsis

덕 매카타스니는 아버지 휴와 함께 스코틀랜드의 커콜리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다.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휴의 증상이 심화되던 어느 날, 사회 복지사 린다 언더힐이 가정 방문을 할 것이란 사실이 통보된다. 덕은 자신이 보호시설에 넘겨질 것을 걱정하며 아버지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전을 짠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덕이 짝사랑하는 로렌스가 나타나고 뒤이어 아그네사라는 여인까지 등장하면서 일은 꼬여만 가는데...

## Character & Cast

휴 김은석

아그네사 & 린다 언더힐 & 요정 남미정

덕 이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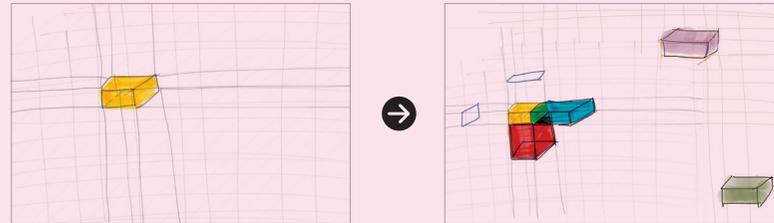
로렌스 이종민

## Creator's Letter

인간은 혼자다.

인간은 두 발 혹은 두 바퀴로 지구표면에 한 몸뚱아리를 붙이고 있는 존재이다. 나는 한 인간이 세상과 만나는 여러 개의 '면'을 6개의 면으로 간소화시켜 생각했고, 주변 세상과 만나면서 살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육면체'로 보았다. 육면체의 모습을 가진 한 인간은 앞-뒤-오른쪽-왼쪽-위-아래의 세상을 만나며 살아간다. 그 면면들은 각각 또 다른 '육면체'들의 여섯 면 중의 하나일 것이고, 이러한 육면체들이 X-Y-Z축으로 펼쳐진 도면 위에 한 칸씩 자리잡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그림으로, 세상을 보았다.

'한 인간'의 주변은 수년 동안 같은 모습으로 유지될 수도 있고, 단기간에 계속 바뀔 수도 있다. 그 주변은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 상상의 대상, 혹은 공간일 수도 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 곧 관계의 대상이다. 이러한 대상들의 무성한 변화 속에 '한 인간'은 '혼자, 한 몸뚱아리로' 지구상에서 있다.



이 희곡은 David Greig의 희곡이다. 극 중의 덕은 참 매력적인 사람이다. 그녀는 혼자인 것 같지만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거나 비관적이지 않다. 열 여섯 살인 그녀는 아직 많이 접하지 못한 세상들과 첫 관계를 맺는 것에 능숙하지 못하다.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아빠와도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야, 아빠의 세계를 제대로 보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된다.

이 공연은 그녀의 (육면체)를 계속 팔로우한다. 그녀가 동요하는 대로 육면체는 움직인다. 한 칸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녀가 어느새 두, 세 칸이 합쳐진 육면체에 살기도 한다. 극에서 그녀와 만나는 첫 번째 칸은 관객석이다. 관객석 한 칸은 극 중에 그녀의 칸과 떨어지기도 하고, 그녀와 다른 칸 사이에 끼이기도 한다. '덕'은 주변과 만나고, 부서지고, 다시 닫히고, 합쳐지기도 하면서 세상을 만나지만, 마지막까지 본인의 한 칸을 다르게 지켜내기도 하는데, 그 모습이 매우 매력적이었다. 열 여섯 살 소녀의 어느 하루를 보면서 서른네 살의 나는 배웠다. 그녀가 세상에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영감을 받길 기다리는 자'처럼 보였고, 매 순간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온전히 성장하는 그녀가 안타깝고 사랑스럽고 부러웠다.

작년부터 일명 '육면체인간, 큐브우주관'에 빠져있던 나에게 마침 희곡<MONSTER IN THE HALL>로 '덕'의 삶을 만나게 해준 번역/드라마터그 이단비 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우란문화재단의 모든 분들, 함께 해주신 배우님들, 모든 스태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관객을 만날 준비를 하며... 덧붙인다.

'나'에게 1순위인 어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128순위일 수 있다. 그 각각의 '육면체'들은 매 순간 각자의 방향을 향해 가면서, 우연히 주변과 만나기도 하고, 만나고 싶어도 영원히 못 만나기도 한다. 이 공연을 보고 나갔을 때, 관객들의 머릿속에 다음과 같은 그림이 떠오르기를 기대한다. 자신이 생각한 우주가 세상의 전체가 아니라, 사람들은 "저마다의 우주를 이고" 스치며-어우러지며 살아가는 그런 그림을...